광주매일신문 제10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6강 '환율과 국내 경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수출·내수 부진…한국경제 위기 직시해야"

경기파악 지표 '재고율·원-엔화 환율 격차' 등 꼽아
저성장 속 2025년까지 복합적 불황 흘러갈 가능성

본보 주최로 지난달 30일 오후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0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6강에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환율과 국내 경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세 분기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감소율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달 30일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0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6강에서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환율과 국내 경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신 교수는 강의에 앞서 "경제가 어떠한 원리 없이 돌아가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법칙이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분위기를 환기했다.

이어 칠판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1997년 IMF, 1985년 외채위기 등 한국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었던 변곡점에 대해 짚어냈다.

신 교수는 "이처럼 40년 사이 한국 경제에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현재 한국 경제는 분명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점점 돈 벌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갈수록 먹고살기가 힘들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강의를 열었다.

신 교수는 가장 먼저 현재 한국이 직면한 수출·내수 부진 등 침체 기로에 놓인 현 상황을 조명했다.

신 교수는 "경기가 안 좋아지기 직전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재고'인데, 그간 수출 효자 품목이던 반도체 상품의 재고가 수출 부진으로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주가·부동산 하락 속 내수도 살아날 기미가 없어 올해부터 내후년까지는 수출·내수 모두 안 좋은 복합적인 불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1985년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닥쳐온 한국의 외채위기 시기의 경제 상황을 되짚으며 다가올 경제 불황에 대해 예측했다.

신 교수는 "1983-1984년 당시 한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환율을 동결한 반면, 엔화는 약세가 이어졌다. 그 결과 품질이 앞서던 일본 제품이 가격까지 싸지면서 국내 수출이 부진, 완전히 망가졌다"며 대한민국의 경기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엔화 환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을 비춰보며 현재 진행되는 엔화 약세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점차적으로 커질 것임을 확신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정부가 국가 경제를 살리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 환율을 일본 엔화 환율과 견주며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수출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며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임을 직시하고, 경제 위기가 오면 환율이 올라서 다시금 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환율 상승이 경제가 살아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고흥군, 취약계층 대상 '사랑의 집수리' 마무리

고흥군은 "최근 민간봉사단체와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낡은 주택 곳곳을 보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집수리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특화사업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고흥군에서 재개됐다.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전남동부지역협의회와 고흥지구위원회가 주관하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솔루션·한화에너지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2천600만원 상당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사업 대상자는 집 안팎에 적치된 생활폐기물(10t 가량)과 화장실, 부엌 등이 노후화 돼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군은 해당 가구를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병원 동행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이랜드 후원물품 지원 ▲폐가전 처리 ▲복지기동대 생활 불편 개선 ▲고흥군가족센터·한국부인회 청소 봉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공영민 군수는 "집수리를 위한 재원으로 성금을 모아주고 내 집을 고친다는 마음으로 재능기부를 해준 한화사회봉사단과 범죄예방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광영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고흥지구위원회장은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농촌경제硏-순천대 '천원의 아침밥' 지원 협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31일 "전날 순천대학교와 ESG 가치 확산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순천대학교와 체결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1천원에 양질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연구원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 촉진과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지 기자

윤병태 시장 '나주지역 제1호 나눔 리더' 가입

나주시는 31일 "윤병태 시장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220인의 나눔 리더'에 나주지역 제1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전남 사랑의열매에서 추진 중인 220인의 나눔리더는 나눔문화를 지역사회 리더들이 선도하고자 마련된 모금 사업이다.

지난 5월1일 시작해 오는 11월30일까지 7개월간 전국적인 릴레이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윤 시장에 이어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이 지역 2호로, 강영구 부시장이 지역 3호로 나눔 리더 캠페인에 동참했다.

나눔 리더는 연내 100만원의 기부금을 약정, 실천하게 된다.

모금된 기부금은 도내 생활취약계층,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재원으로 활용된다.

윤병태 시장은 "소소하지만 선한 영향력들이 하나둘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나눔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목포하당청소년문화센터, 기후환경 동아리 발대식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는 "최근 목포 하당중학교와 학교 1층 북카페에서 '기후환경 동아리 놀라지 연구소 Knowledge'의 발대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놀라지 연구소는 기후 위기·탄소중립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세대가 현재이자 미래에서 살아갈 청소년(10-20대) 세대일 확률이 높은 만큼,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생길 변화에 대응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와 청소년기관이 연계해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한다.

김혜경 목포 하당중학교 교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2℃ 이하, 더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체결한 '파리협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목포 하당중 2학년 김기성 학생은 "지구의 소중한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책임 있는 행동과 실천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담양군, 에너지 절약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

담양군은 "최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군민 인식 개선을 위해 '하루 1kWh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전남도·담양군 등에서 40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 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실천 요령을 안내하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요 내용은 ▲에어컨 설정온도 1℃ 높이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 유지하기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전기밥솥 보온 시간 줄이기 등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담양=정승균 기자

김종득 영암경찰서장, 마약 예방 캠페인 동참

영암경찰서는 31일 "전날 김종득 영암경찰서장과 직원들이 마약 범죄 예방·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SNS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어진다.

캠페인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득 영암경찰서장은 "마약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마약 청정국가를 위해 마약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득 영암경찰서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우승희 영암군수를 지목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여수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여수경찰서는 31일 "전날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여수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서 녹색어머니회는 등·하교시간 교통사고 안전활동, 학교 주변 유해환경·학교폭력 예방활동,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교통 캠페인을 하는 봉사단체로 2005년 발족해 올해로 18년째를 맞았으며 11개 초등학교, 309명의 학부모로 구성돼 있다.

발대식은 2022년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수여, 2023년 임원진에 대한 위촉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최홍범 여수경찰서장은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노고로 올해 들어 단 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희 녹색어머니회장은 "내 자녀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양경찰, 청소년 정책자문단 위촉

광양경찰서는 "최근 청소년 정책자문단 위촉 및 청소년 선도 보호 유공자, 모범청소년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눈높이 정책 구현을 위해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경찰의 청소년 보호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2021년 시작해 올해 3기 정책자문단 12명을 선발·위촉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보호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와 모범청소년 14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진행하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순천시 소재 청소년 경찰학교를 방문해 경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정재봉 광양경찰서장은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